

이기는 삶

# 잘 듣는 것이 잘 말하는 것이다

명수는 한 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기본이 언짢아졌다. 앞에 앉은 동료들 보니 탄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뭐야, 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딴 짓을 하고 있어? 사람이 예의가 없잖아.' 명수는 더 이상 그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듣지도 않는 말을 해 봐야 자기 입만 아플 뿐이다. 이때부터 그 동료는 명수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싫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명수는 두 번 다시 그와 대화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명수의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도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생면부지(生面不知)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공통 관심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날씨나 정치, 경제에 대하여, 또는 같은 색의 옷을 입어서 마음이 통할

것 같든지,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는 데 좋은 일이 있느냐는 등의 상대방이 쉽게 응할 수 있는 화제(話題)로 대화를 시작하면 의외로 상대방도 쉽게 대화에 응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별다른 말없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유쾌한 대화라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없이 가만히 있다고만 해서 말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명수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듣는 데도 요령이 있다. 첫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되풀이해 준다. 둘째, 중간 중간에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관심

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흥이 나서 이야기를 더욱 재미있게 할 것이고, 대화는 즐겁게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적당히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는 "어째서?" "그리고 나서?" 라는 식의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빠져들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을 얻는 지혜인 이청득심(以聽得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잘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처럼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말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의해서 들어보아야 24초를 넘기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좋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보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 더 이로운 때가 많다. 우선 다양한 정보를 듣게 되고, 상대방의 호감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마냥 듣기만 해서 안 된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이면 단호히 끊어버리는 분별력은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발전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The source of desire; Self-Awareness 욕심의 근본: 나라는 의식!

죄는 선악과다. 그리고 선악과는 마귀의 마음이다. 또한 마귀의 마음은 죄의 욕심의 마음이다. 따라서 죄는 욕심의 마음이다.

▶ Sin is the Forbidden Fruit, and the Forbidden Fruit is an Evil Heart, and an Evil Heart is sinful desire. Consequently, Sin is desire.

그러므로 죄를 짓는 욕심의 마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 Therefore, sinful desire goes against the soul of life.

그런데 욕심의 근본은 나라는 의식이다. 우리는 나라는 의식이 욕심의 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Meanwhile, the source of desire is Self-Awareness. It is well known to us that Self-Awareness is the spirit of desire.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속이기 쉽고 모든 사악한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온다고 말한다.

▶ So, the Bible says that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all wicked things come from a man's heart.

나라는 의식이 오직 그러한 죄악의 마음의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드는 죄가 된다.

▶ Self-Awareness is merely the originator of such a sinful heart. So to speak, Self-Awareness is the original, the hereditary and self-made sin.

그러므로 '나'는 곧 욕심의 존재요, 욕심이 죄고 죄가 곧 '나'이다. '나' 자체가 죄이므로 우리는 고통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 Therefore, self is desire itself, and desire is sin and sin is self. Now that self is sin itself, we come to be on the horns of a dilemma. \*

by Alice

## 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진 수막새에 담긴 메시지(1)

지금으로부터 3천 2백년 전의 고조선의 수도 평양 근처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새긴 3점의 고조선 수막새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본지 8면 외장특집 참조).

히브리어로 심판자라는 뜻의 '단'의 이름이 수막새에 기록돼

**[외장①]** 첫 번째로 <단군의 독수리 수막새>에는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 즉 단군(檀君)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또한 동방나라 한반도에 정착하는 단군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시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사46:11)" 라고 예언을 할 목적으로 비롯되었다.

사실 이미 오래 전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4군(軍) 가운데 북쪽을 담당 한 단지파 군영(軍營)에는 흰 바탕에 독수리 문양을 그려놓은 깃발이 휘날렸 다(에스겔 1:10, 참고로 유다 군영의 깃

발은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

고조선 개창 때부터 무궁화 보급을 독려하는 등 지극한 무궁화 사랑을 담아

**[외장②]** 두 번째로 <오염화(무궁화&근화문) 수막새>에는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 꽃씨를 한반도에 가져와 널리 전파하라는 메시지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의 어린 묘목을 추위로부터 잘 보호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평안도 이북 즉 함경도나 만주에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무궁화 재배가 불가능하였고 고조선의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평안도 대동강 유역에서는 추운 겨울에 어린 가지를 잘 보살피면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제단(天祭壇) 주변에는 무궁화를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토록 한민족의 조상 단지파 백성들이 무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단지파의 자손에서 구세주 심판자가 출현하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성취한다는 야곱의 축복(창49:16)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궁화는 영

생을 상징하는 꽃이다. 지금 구세주가 출현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무궁화처럼 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에 서있다. 조상 대대로 영원해오던 바야흐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인내천(人乃天)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단지파가 우상숭배 했다(사사기 18장)는 억울한 오명을 벗겨 주는 내용 담아

**[외장③]** 세 번째로 <야훼의 꽃무늬 수막새>에는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이 얼굴 형상 속에 새겨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얼굴 형상 속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단지파에서 구세주 심판자가 출현한다는 야곱의 예언(창49:16)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사기 18장에 미가 집의 신상을 600명의 단지파 병정이 탈취해 가지고 가서 그 미가의 신상을 계속해서 단지파의 수중에 두고 우상으로 섬겼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그런데 3천 2백년 전의 야훼의 꽃무늬 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

내용의 메시지는, 단지파가 미가 집의 신상을 보고 모세율법 즉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모세율법도 알지 못하고 우상의 신상을 모시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조롱했다는 진실을 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탈취한 것이라기보다 우상 숭배의 증거물로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만약에 이러한 증거물이 없으면 예브라임지파에서 단지파가 은 신상을 강탈해갔을 뿐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누명을 씌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합세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장난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베냐민지파의 몰살 사건을 들 수 있는바, 베냐민지파의 몰살 사건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유다지파에 속한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이 성경 사사기(19~20장)에 은폐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진실은 단지파 이동 배경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박태선 기자

## 올드네게브 문자는 고조선을 건립한 한민족의 뿌리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2)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제임스 해리스(James R. Harris) 교수는 고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인 탐사를 통해 성서(聖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훼' 이름을 올드네게브 문자(BC1,200년)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 시나이반도와 고대 가나안지역의 암각화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로 확인된 고대 시나이반도의 문자를 '원시 시나이문자(Proto-Sinaitic)'로, 또 고대 가나안지역의 문자를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라고 명명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가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인 까닭은, 아마도 저 멀리 우르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

르는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남단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면서 '야훼'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문자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창 21:31).

더 나아가 노아의 장자 셈이 아브라함 150세까지 살다가 600세에 임종한 것을 염두한다면, 최초의 히브리어인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는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언어와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올드네게브 문자가 사용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단지파의 삼손이 활약하던 때와 일치한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

字語)에 익숙한 단지파 민족이 알타이 산맥에서 우거할 때에 북쪽 시베리아 별판으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파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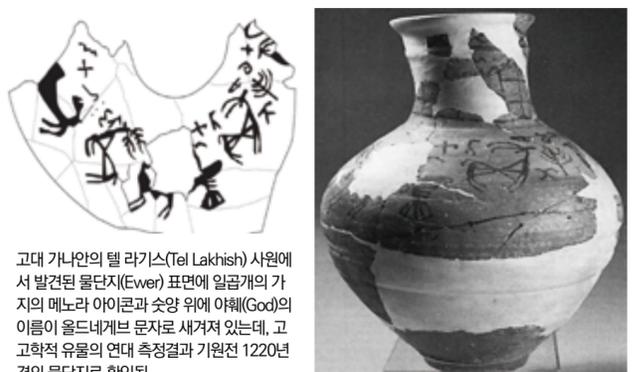
그리고 단지파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1,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다(손성태 교수의 책 『우리민족의 대이동』 참조), 불문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

파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정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바위에 올드네게브의 문자를 많이 새겼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화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의 책에 실린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물단지파와 북미 암각화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가 고조선 수막새에 새겨진 올드네게브 문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우측 그림). 이는 한민족과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 하겠다.\*

박태선 기자



고대 가나안의 텔 라기스(Tel Lakhish) 사막에서 발견된 물단지(Ewer) 표면에 일곱개의 가지의 메노라 아이콘과 숫양 위에 야훼(God)의 이름이 올드네게브 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 측정결과 기원전 1220년 경의 물건으로 확인됨



북아메리카의 암각화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 가운데, 특히 위 사진 5번 색선의 합자(合字: Ligatures)는 엘의 성전(temple of El)을 뜻한다

박태선 기자